

민주 “변수 사라져” 희색...국힘 “결렬은 아냐” 당황

야권 단일화 결렬...대선판 요동

박빙 구도 속 유불리 관심 집중

“통합정부 꾸릴 준비 돼 있다”

“정권교체 함께 노력하겠다”

여야 안철수 마음 잡기 안간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전격 단일화 철회 선언을 하면서 이번 대선 막판 최대 변수로 급부상했던 야권 단일화는 사실상 결렬 수순을 밟게 됐다. 대선 최대 변수가 사라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오차 범위 안팎의 경합을 거듭해온 대선판은 다시 한번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치권은 안철수 후보가 “이제부터 저의 길을 가겠다”며 대선 완주를 선언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과 전망을 내놓았다.

무엇보다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팽팽한 승부를 펼치고 있는 이번 대선에서 최대 변수가 사라지면서 이 후보와 윤 후보 간 유불리에 관심이 집중됐다.

민주당은 “마지막 변수가 사라졌다”며 반겼고,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며 단일화 재추진 등의 여지를

남겼다.

정가에서는 안 후보와의 단일화를 과장 간절함이 없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1997년 ‘김대중-김종필(DJP) 후보 단일화’ 과정에 군소후보인 김종필 자민련 총재에게 총리와 내각 절반 양보, 내각제 개헌까지 문서로 합의한 ‘과격’이 없었다는 점이다.

대외적으로 국민의힘과 안 후보 간 단일화에 시선이 집중됐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전 카드”로 안 후보와 단일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여야 모두 ‘안철수의 몸값’을 제대로 지불하지는 못하고 있다.

안 후보로서는 과거 정치 행보에서 반복됐던 ‘출마-사퇴, 단일화-철회(총국)’ 등을 반복하는 ‘극단적인 정치 판단’도 지적받고 있다.

안 후보의 독자 행보 선언 후 여야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여전히 안 후보의 의제를 수용해 통합정부를 꾸릴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저희는 안 후보가 제시한 과학기술 강국 여젠다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며 “일관되게 말씀드렸지만 안 후보가 주장한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정신은 이재명 후보가 전폭 수용해 과거(과학기술)부총리 공약으로 흡수했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 공화적인 단일화 여부를 넘어서 저희가 집권해도 이 후보가 말씀한 대로 통합 정부를 구성하겠다, 이러한 자세로 항상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안 후보가 저런 발표를 하게 된 것은 이준석 대표나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측에서 안 후보를 모욕하고 모멸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도 말을 아끼면서 ‘정권교체’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강조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안 후보께서 말씀하신 충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국민께 실망을 드려선 안 될 것”이라며 “사실 그동안 안 후보 측과 윤석열 선거대책본부 측은 꾸준히 소통해왔다. 양측 책임 있는 분들이 소통을 꾸준히 해왔기에 오늘 안 후보 회견은 저희로서 상당히 의외였다”고 말했다.

또 “안 후보 측의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좀 시간이 지체된 측면이 있다. 갑자기 이런 선언을 하셔서 약간 의외라는 반응이 좀 나오고 있다”며 “지금의 경우에도 (단일화 논의를) 보편적(상향식)으로 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면 톱다운(하향식) 방식은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냐”며 “길은 열려 있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막판 후보 간 담판을 통한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0일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공식 선거전 첫 주말...이재명 호남, 윤석열 영남 찾아 지지층 결집 호소

이 “군사정권 이어 검찰왕국 위기”

윤 “부패한 민주당 정권에 어퍼컷”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공식 선거전 첫 주말을 앞두고 호남을 찾아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영남지역을 찾아 유세를 이어가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광주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만든 민주공화국, 평화의 가치가 이제 위기에 처했다”면서 “군사정권이 들어서서 수십 년을 고생했는데 다시 검찰들이 지배하는 검찰 왕국에서 검찰 왕의 지배에 우리가 종속당해야겠냐”며 지지

호소했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민주당 광주지역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고 정대철, 임재정, 장영달, 김원기 등 당 원로급 인사들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 후보의 입장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면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됐다.

이 후보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모함을 받아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또 “13년 전 5월 어느 날 검찰의 정치보복으로 극단적 선택한, 우리가 지켜주지 못해 평생 후회하는 어떤 분이 있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도 거론한 뒤 “정치보복은 있어선 안 된다”면서 윤 후보에 날을 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19일과 20일 전북 익산·전주와 경기도 화성을 돌며 ‘땀발 다지기’를 이어갔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18일 상주·김천·구미·칠곡과 대구 등 대구·경북(TK) 지역을 찾은 데 이어 19일 부산·울산·경남(PK) 지역 7개 도시를 훑었다. 울산 뿐 아니라 양산·김해·거제·통영·진주까지 구석구석 다니다 민심에 호소했다. 윤석열 후보는 울산·양산·김해·거제·통영·진주·창원 등 PK 7개 지역을 도는 집중 유세에서 매년 ‘어퍼컷’을 날렸다.

국민의힘 측은 “부패한 민주당 정권을 일갈하는 사자후에 이어, 통쾌한 어퍼컷을 날릴 때면 유세 현장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른다”고 자랑했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0일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철회를 선언하면 배수의진을 쳤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이날 서울 강남역 등지에서 유세를 이어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재명, 국립의대 등 전남 7대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남에 국립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해상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활용한 햇빛연금·바람연금 등을 도입하는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산업 ▲친환경 중소형 조선 등 첨단전략산업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남해안 관광벨트 ▲스마트농수축산·식품업 ▲전남 국립의과대 설립 등 공공보건의료 확충 ▲호남고속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

대 등 전남 7대 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거점인 전남에 해상풍력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신안·여수 해상풍력발전 추진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인프라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재생에너지 개발과정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주민소득형

모델을 도입하겠다”며 “영농형 태양광을 이용한 ‘햇빛연금’과 해상풍력 기반의 ‘바람연금’ 도입으로 전남도민의 소득을 늘리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전남 대불산안을 친환경 중소형 선박 전문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여수·광양항을 그린스마트항만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고흥을 비롯한 전남 동부권에는 우주발사체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남해안 해양관광벨트 조성, 여수 크루즈항 확대, 국립 해양수산 박물관 건립, 남도음식진흥원 설립,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 조기 착공,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등도 공약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이용섭 시장 “복합쇼핑몰 추진중이니 정치권 갈등 조장 말고 민생 챙겨달라”

국민의힘 제기 대선 쟁점 부상

시민 찬반 놓고 여야 치열한 공방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역 내 대선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복합쇼핑몰 유치와 관련, 정치권을 향해 “더 이상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민생문제부터 챙겨달라”고 호소했다.

이 시장은 지난 18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복합쇼핑몰 유치는 광주시장이 시민 뜻을 받아들여 잘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지역 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더 시급한 민생 문제를 챙기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앞서 지난 16일 광주 광산구 송정매일시장에서 “광주 시민들이 다른 지역에 다 있는 복합쇼핑몰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민주당이 유치를 반대해왔다”며 “시민이 원하는 데 정치인이 무슨 자격으로 쇼핑몰 하나 들어오는 것을 막을 권리가 있는가”라며 민주당 책임론과 호남 확대론을 들고 나왔다. 이준석 당 대표와 국민의힘 광주시장도 가세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광주시민 다수가 유치를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들며 ‘복합쇼핑몰, 민주당 반대’를 쟁점화했다.

이에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18일 광

주에서 “자영업자·소규모 점포주와 지역주민 편의가 충돌할 때는 다 조정해서 합리적 타협안을 만들면 된다”며 “(쇼핑몰이)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고, 그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다. 그럴 때 한쪽 편을 들어 상대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인 이용섭 시장은 “복합쇼핑몰 유치는 광주시장이 책임지고 시민들과 협의해 추진할 문제”라면서 “광주시는 지난해 8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그동안 출입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수차례 ‘복합쇼핑몰 유치’ 의사를 밝힌 이 시장은 “지난 연말 시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광주대 전환 특별추진위원회’에서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복합쇼핑몰 유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지난해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치 방안을 마련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복합쇼핑몰 유치는 지역 사회가 풀어야 할 현안이고, 광주시와 시민은 그런 역할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할 테니 정치권은 이 문제를 이슈화해 분열, 갈등을 조장하거나 지역 통합을 저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순천시 세계유산알리기 캠페인

Korean Heritage Route Suncheon

순천의 탁월한 가치를 만나는 여행 유네스코 세계유산, 선암사

